

예 배	일 시	장 소
주일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예배당
어린이 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교육관
청년 모듬	주일 오후 3시 30분	교육관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7시	음대 강의실
한민 말씀방	매일	단체 카톡방

주일 예배 봉사위원

	09. 20	09. 27	10. 04
대 표 기 도	이윤선 성도	이상호 목사	이상호 목사
성 경 봉 독	이윤선 성도	정해욱 형제	김정규 형제

교회소식

9월의 축복 인사 : 믿음으로 강건하시길 축복합니다!

1.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온라인 헌금 안내 - 십일조(Zehnte) 감사(Dank) 선교(Mission) 구제(Erlösung) 주일헌금(Kollekte)을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 용도)
3. 선교 훈련(초기 7교회, 바울사도 1차 전도지) - 27년 3월 9일~16일(7박8일, 튀르키예) 신청-9월27일(주일)까지. 최상우 청년회 회장께
4. 이사 - 오서진 자매, 9월 17일 Linz로 이사(직장 이동)
5. 나눔의 시간을 위하여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우동정

생일	이한빛 자매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합계(Euro)	
온라인헌금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일어나서 함께 가자(아2:10)”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담임목사 이 상 호(Sang Ho Rhee)
예배반주 신 기 훈 형제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7, 29,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온라인 헌금 안내

예금주 : Jin Soon Chung
IBAN : DE26 2905 0101 0012 0638 48
BIC : SBRED 22XXX

홈페이지 : 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찬 양 Gemeindelied	-----	Liebevoll 찬양팀
*송 영 Chor	-----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	이상호 목사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Gemeindelied	336장	다같이
기 도 Gebet	-----	최상우 형제
성경봉독 Predigttext	계 2 : 8 - 11(신p 400) (Offenbarung 2:8~11)	최상우 형제
특별찬양 Sonderlied	-----	오서진 자매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헌금기도 Kollektgebet	-----	이상호 목사
설 교 Predigt	서머나 교회에게 하신 말씀	이상호 목사
*파송찬양 Abschlusslied	주와 같이 길 가는 것(1,3절)	다같이
*축 도 Segnungsgebet	-----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	반주자

* 표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아침은 섬김입니다”

†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놓인 헌금함에 넣어 주세요.

†기도제목

1. 예배 봉사자와 청년 섬김이들, 청년들의 진로(진학, 취업, 결혼)를 위해
2.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 청년들의 가치관 확립을 위해(진로, 결혼)
3. 영적, 육적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을 일으켜 주소서(황희순 집사님)
4. 2027년 3월 9~16일까지의 선교훈련을 위하여
5. 일어나서 함께 가는 교회 - 선교, 구제, 영성훈련에 힘쓰는 교회 되도록

서머나 교회에게 하신 말씀

서머나는 경제와 무역이 발달한 부유한 항구도시였지만, 그곳의 교회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서머나 교회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눈앞의 문제와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삶과 역사를 주관하시며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2. 주님은 우리의 환난과 궁핍을 아십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뿐 아니라 비방과 핍박까지 알고 계셨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가난한 교회로 보았지만, 주님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의 신앙을 판단하는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믿고 있느냐입니다.

3.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서는 서머나 교회가 앞으로도 고난받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죽도록 충성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때로 세상과 다른 길을 걷고 손해를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생명의 관”을 주시며,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다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평가와 세상의 성공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며, 주님께서서는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습니다.

소 모임을 위한 질문

1. 세상에서는 궁핍하지만 주님께 부요한 사람의 삶은 어떠할까요?
2. 어떤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지 나눠 보세요.